

자전거 도둑이 행복까지 훔쳐갔어요

용감한 형제

추석을 맞아 이현이와 다현이는 선물로 자전거를 받기로 했어요. 가족이 다 같이 가게로 가서 자전거를 골랐지요. 다현이에게는 중고자전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다현이는 보조바퀴가 달린 것을 타다가 그걸 떼고는 처음 타는 거예요. 그러니 중고자전거로 연습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전거 상점 주인아저씨가 다현이 걸로 무척 비싸고 좋은 걸 권했어요. 다현이도 그 자전거가 맘에 든다며 꼭 그걸 사겠다고 하고요. 망설이던 엄마도 다현이가 애교떨며 조르니 그만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빠는 물론 다현이 편이었어요.

“중고로 연습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현이만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나 봐요. 다현이 자전거를 결정한 다음에야 이현이 자전거를 골랐어요. 이현이 것도 작년엔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비싼 걸로 샀어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빠는 다현이를 잡아주고 엄마는 뒤에서 잘 탄다고 박수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현이는 잃어버린 자전거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자전거를 처음 샀을 때 아빠가 학교 운동장에서 잡아주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었는데... 자전거를 도둑맞으면서 자기의 행복도 몽땅 도둑맞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태권도 학원에서 갑자기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편지지를 나눠줬어요. 관장님은 가끔 귀찮은 일을 시켜요. 지난번 어버이날도 썼는데, 추석이라고 또 쓰는 게 말이 되나고요.

아이들이 안 쓰려고 하자 관장님이 솔직하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이현이는 짝막하게 썼어요.

저녁 때 퇴근한 엄마한테 다현이가 사고 두 알을 꺼냈어요. 편지랑 함께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사과를 샀대요.

“나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뻐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이다음에 꼭 갑을게요. 사랑해요.”

“어이구, 글씨도 죄다 틀렸네.”
“왜 남의 편지를 보고 난리야. 형은 편지라도 썼어?”

엄마가 이현이를 쳐다보네요. 이현이는 마지막 편지를 꺼냅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길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편지를 보고 엄마가 눈을 빠르게 깜빡깜빡했어요. 화가 나는데 참을 때 하는 행동이지요. 이현이는 조금 후회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삽화=스튜디오 돌〉

“편지가 싸인 받아오래요.”
엄마는 다현이 편지에는 싸인을 해주더니 이현이 편지는 계속 풀이져라 쳐다만 봐요.

이현이는 싸인 받는 걸 포기하고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요즘에 좋은 건 이것 밖에 없어요. 닌텐도 게임기를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대 들은 적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더니 3만원이나 나온 거예요. 결국 엄청 혼나고 두 달 치 용돈을 합해 물어내야 했어요. 닌텐도도 안사주고 휴대폰도 안사주면서,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구두구두구, 게임 안에서 전사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 때 문이 열리더니 다현이가 쏙 들어왔어요. “형아, 내가 엄마 선물로 사준 사과 무자게 맛있게 하나 먹어봐.”

그러면서 이현이에게 꺾은 사과 집시를 내밀었어요. 순간 이현이는 화가 치밀었어요.

“너 나 악하려는 거냐?”
이현이가 사과 한 쪽을 잡아채서 집어던졌어요. “왜 그래?”

“너나 많이 쳐먹어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자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둘 다 나와.”

다현이도 세계 맞았지만 제가 더 세계 맞았어요. 아무래도 아가 준 편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이현이 눈에서 눈물이 짙게 나왔어요.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엄마한테는 선물이야!”

이현이는 침대에 누워 꿈곰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지요.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렇지만 화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짜증이 났어요. 짜증은 안개처럼 점점 퍼지더니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실어졌어요.

이현이는 이불을 얼굴까지 꼭 쓰고 잠이 들었어요. 조금 뒤에 문이 살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현이의 빨강계 부어오른 손바닥을 붙들고 곁에 앉았어요.

“이현이는 사춘기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데... 이해해줘야 하는데... 미안해,

정말.”
다현이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이 깰었어요. 이층침대의 위쪽을 쓰는 다현이는 고개를 숙 빼서 아래쪽의 형아를 쳐다보았어요. 이현이가 심각한 분위기로 침대 사다리를 손가락으로 툭툭하고 있었어요.

왜 형이 저렇게 똥똥을 잡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상관이나’고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참았지요.

다현이가 식탁에 앉자 엄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형아, 어제 일 때문에 화난 것이지?”
다현이는 어제의 일이 뭔지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어제 내가 엄마한테 사과와 편지를 선물했고,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껴안아주면 참 좋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아는 왜 화가 난 거지?

그런 다현이를 보고 엄마가 웃었어요. “어쩔 형제가 이렇게 다들까. 한 놈은 너무 예민해서 문제, 또 한 놈은 저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

은 다 잊어버려서 문제.”
아 맞아. 형하고 싸워서 엄마한테 손바닥을 맞았지요. 그런데 어제 일을 왜 아침까지 기억해서 화를 내는 걸까요?

이현이는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찌개도 안 먹고 학교에 갔어요.

다현이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밥을 조금만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벼 먹다보니 맛있어서 한 그릇을 싹 비웠어요.

이현이가 먼저 학교에 가서 다현이도 혼자서 학교에 가요. 아침마다 밥 한 그릇씩 꼭 해쳐주는 똥똥이 형아가 밥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좀 걱정이 됐어요. 주머니에서 막대사탕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라도 쥘면 좋았을 텐데.

다현이는 할 수 없이 사탕을 제 입에 넣었어요. 와, 끝내주는 달기 맛이네요. 사탕이 혀에서 녹듯이 다현이가 형을 걱정하는 마음이 금세 녹아서 없어져버렸어요.

다현이는 형이랑 같은 시간에 태권도를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똥똥이 다르니 수업은 서로 다른 층에서 해요. 다현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후다닥 뛰어나가 형을 기다렸어요. 느릿느릿 나오던 이현이가 동생을 분척만척 하고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작업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아, 어디 가는 거야?”
이현이가 휙 돌아보았어요.

“오늘 형아는 집에 안 들어갈 거다.”
“밤에까지? 그럼 어디서 잘 건데?”

이현이는 어깨를 위로 스스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형아, 왜 집에 안 가는 건데?”

“엄마가 어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형아, 어디로 갈 거야?”

다현이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 해졌어요. 어디 재밌는 데로 가면 따라갈 생각이었지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니까 넌 얼른 작업실로 가.”

이현이가 성큼성큼 저만큼 걸어가 버렸어요. 치사해서 안 따라가겠다고 생각한 다현이는 막 뛰어서 아빠의 작업실로 갔어요. 아빠는 두 명의 후배와 만화작업실에서 일을 해요. 엄마의 퇴근이 늦어서 아이들은 주로 삼촌들과 아빠와 같이 저녁을 먹어요.

“아빠, 큰일 났어. 형아가 말이야. 오늘 집에 안 들어온대.”

다현이는 아빠가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만 물어보네요.

“잘 데는 있대?”

“잘 몰라. 혹시 모르니까 승준이 형아네 집에 전화 한번 해봐.”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아빠는 걱정도 안 되는지 천하태평이에요.

저녁을 다 먹었는데도 이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36면으로 계속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물

K 샌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4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검정

지압·동갈창

지압동갈창

동 99%

가죽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NAVER 통합검색 |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전문업체 보세영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해성불원(海戒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은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급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가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자비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